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3. 22.(금)

동해해수청, 현장 소통과 점검으로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도와 울릉도 간 연안여객선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3.18.부터 3.22.까지 5일간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운항재개 일시) 강릉항 씨스타5호 3.22.(금) 08:00 / 묵호항 씨스타1호 3.29.(금) 08:30

우선, 선사, 운항관리센터, 해사안전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연안여객선 안전 감단회를 3.19.(화) 개최하여 선내 안전요원 배치, 현장 모니터링 및 신분증 확인 철저 등 여객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고 안전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여객선 2척에 대해 구명장비·소화·비상설비 등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 금지 등 안전운항을 당부하였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릉항 및 묵호항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응력을 유지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선사 계도를 통해 종사자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철락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정재삼 (033-520-6143)



씨스타5호 구명정 안전점검(3.18)



연안여객선 안전 간담회(3.19)